

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

박 영 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(parkyh@kiep.go.kr, Tel; 3460-1231)

주요 내용

- 대대적인 원조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경제 진출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.
- 중국은 아프리카 접근에 있어 이미 서방국가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상태임.
-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1차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.
- 중국의 석유 확보에 대한 집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, 현재 아프리카 원유도입 비중이 30%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25년경에는 그 비중이 45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-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물, 면화, 목재 등 각종 원자재를 망라하고 있음.
-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과 협력방안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.
-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'암흑의 대륙' 정도로만 인식하고 소홀히 대한다면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에 있어 그만큼 경쟁국들에 뒤질 수밖에 없음.

1. 개요

-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속도는 서방국가들이 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규모의 개발원조가 동원되고 있음.
- 일각에서는 중국이 저가의 상품공세로 아프리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, 아프리카를 중국의 자원공급지로 만들고 있다며 식민지론까지 제기하고 있음.
-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하고 있음.
-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든지간에 실질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은 제3세계에서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차원을 뛰어넘어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실리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.
-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 능함.
- 지금처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막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고, 여기에 ‘소프트 파워’를 계속 확산해나간다면 아프리카 내 중국의 국가적 위상과 입지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임.
-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전략을 분석할 때는 ‘하드 파워’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의 접근전략을 주목해야 함.
- 자원 확보와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에게 중국의 대아프리카 접근전략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큼.

2.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

가. 접근전략의 특징

- 중국의 아프리카 개발전략에는 대대적인 원조공세가 동원되고 있음.
- 중국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, 예컨대 지난 1975년 완공된 1,800km의 탄자니아~잠비아 철도건설공사 지원규모는 무려 4.5억 달러에 달하였음.
- 중국의 개발원조는 정부청사건물, 대통령궁, 국회의사당, 체육관, 병원, 컨벤션센터, 국립극장, 공항, 고속도로 및 교량, 국민광장, 방송기지국, 주택, 발전소, 학교·직업훈련센터 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대규모의 의료 지원 및 인력 초청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.
- 방문외교 등을 통한 중국의 파상적인 아프리카 외교공세가 이어지고 있음.
- 국가간 협력수준은 인사교류로도 가늠되는데 최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, 개발지원 약속 등을 통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.
- 중국은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첫 번째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할 정도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.
- 중국 외교부는 2006년을 “아프리카의 해”로 부를 만큼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데, 2006년 한 해에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아프리카 16개국을 방문하였음.
- 중국이 구상하는 아프리카 접근전략은 ‘하드 파워’의 강화와 함께 ‘소프트 파워’의 확산임.

※ ‘소프트 파워’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‘하드 파워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념, 문화, 신뢰 등 비물질적인 국제정치적 파워를 의미함.

-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 못지않게 교육·문화·방송교류 등을 앞세우며 다양한 형태의 ‘소프트 파워’로 아프리카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음.
- 아프리카 주요국 대학내에 ‘공자연구소(Confucius Institutes)’ 설립 추진도 중국문화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 확산이 그 목적임.
- 또한 아프리카의 외교관 등 관료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정책과 이념을 교육하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은 상업적 차원을 뛰어넘어 ‘교실외교’로까지 발전하고 있음.
-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소위 “베이징 컨센서스(Beijing Consensus)”를 통해 아프리카의 새로운 발전모델로도 등장하고 있음.
- 중국식 발전모델로 표현되는 “베이징 컨센서스”가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지만, 서방국가나 국제기구의 개혁요구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학습대상이 되고 있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는 대만의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도 이어지고 있음.
- 몇 년 전만 해도 세네갈, 라이베리아, 차드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만과의 국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, 근래 들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속속 단절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음.
- 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파워와 대대적인 선심외교와 무관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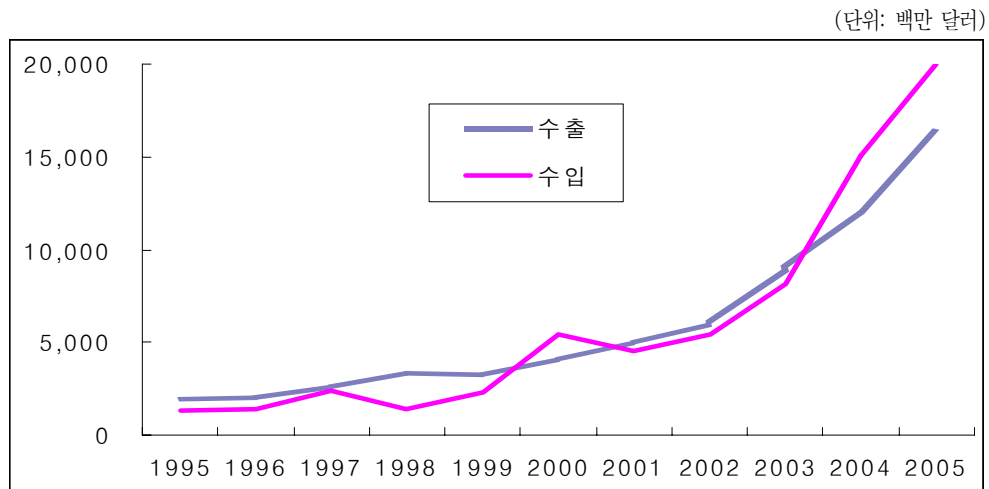
표 1.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

정치적·이념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강화	· 이미 아프리카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 ·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적임 국가로 인식 · 지난 11월 개최된 「중·아프리카 협력포럼」에는 48개 아프리카 정상급 지도자가 대거 참석
외채 탕감 및 대규모의 개발원조 제공	· 2000년 이후 31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외채 탕감 · 2009년까지 원조규모를 현재의 2배로 증액 · 2009년까지 50억 달러의 우대차관 제공 ·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공여 · AU(아프리카연합) 컨퍼런스센터 건립 지원
자원의 패권주의가 심하지 않은 신흥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	·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앙골라, 수단 등 신흥 산유국에 대한 집중공략
저가상품 공세로 아프리카 시장침투 가속화	· 최북단 알제리에서 최남단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상품의 범람 · 영국과 미국을 제치고 제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 · 교역규모는 2000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60억 달러로 급증(2010년경에는 1천억 달러 전망)
무기 판매 및 군사협력 강화	·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상국 또는 인권탄압국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
소프트 파워의 확산	· 교육·문화·방송 교류 등을 통한 중국문화 확산

자료: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

- 중국은 저가 상품 공세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음.
-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규모는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20억~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, 2000년부터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규모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여 현재 프랑스에 이어 제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.
- 이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전체 대외무역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, 무엇보다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외교력을 집중해 온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의 결실로 볼 수 있음.

그림 1. 중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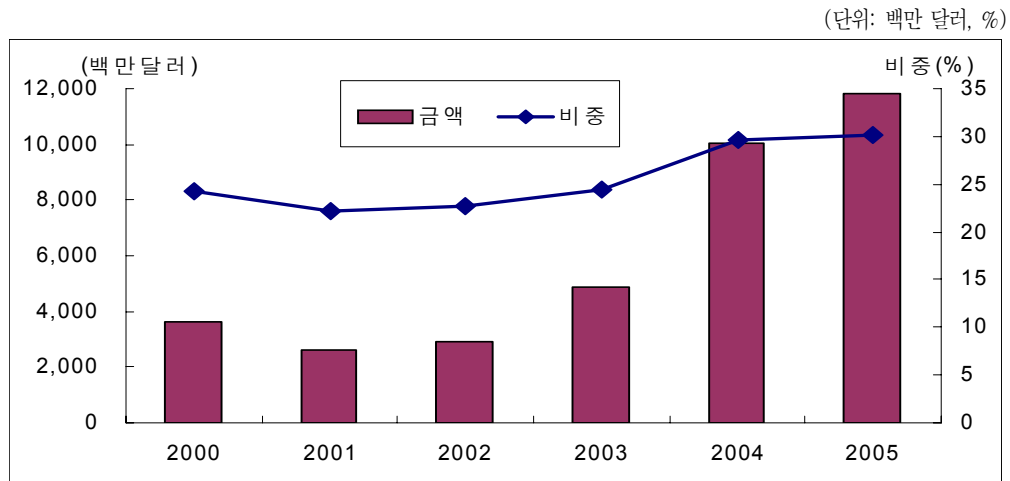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MF, 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(DOT).

나.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전략

- 중국의 석유 확보에 대한 집념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음.
- 중국 역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과 석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석유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음.
-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조달문제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자 원조 제공 및 정상방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주력해오고 있음.
- 2005년의 경우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 도입액은 무려 1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원유수입액의 30%에 해당하는 규모임.
-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석유공급원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1.5배에 해당하는 규모임.

그림 2. 중국의 아프리카 원유 수입 현황



자료: 중국무역통계

-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원의 패권주의가 덜한 아프리카 신흥 산유국을 집중공략하고 있음.
 -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경제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아프리카 산유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.
 - 예컨대 중국은 2004년 4월 UN 안보리에서 대규모 인종 학살(Darfur 사태)이 자행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경제제재안을 상정하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규모의 자금을 수단 석유산업에 투자하였음.
 - 그 결과 중국은 수단 남부지역에서 유전 개발 및 정유산업 그리고 송유관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 전반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석유 개발은 정상방문 등 석유외교에 의해 상당 부문 견인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아프리카 석유 확보에 우월적인 위치를 장악해나가고 있음.
 - 지난 2004년 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아프리카(이집트, 가봉, 알제리) 방문의 핵심의제 역시 석유협력이었음.
 - 가봉에서는 후 주석의 차관 제공 약속과 동시에 석유공급계약이 체결(2004년 2월)되었으며, 알제리와의 석유협력을 포함하는 경제·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음.

-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광물자원과 목재 등 원자재를 망라하고 있음.
- 짐바브웨의 백금, 잠비아의 구리, 콩고의 목재, 남아공의 철광석 등은 대부분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, 중국의 아프리카 면화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20%에 이르고 있음.

3. 중국의 접근 강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반응

가. 긍정적 입장: 아프리카 개발욕구의 충족

-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는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음.
-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2006년 9월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(「아프리카의 비단길: 중국과 인도의 새로운 경제 지평(Africa's Silk Road: China and India's New Economic Frontier)」) 역시 중국과의 경제 교류 강화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는 아프리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.

표 2. 중국경제의 부상 및 협력강화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	직접적 영향	간접적 영향
긍정적 측면	· 아프리카 개발욕구에의 기여 · 수출 및 직접투자 확대 · 저가의 상품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	· 아프리카 주력 수출상품(원유 및 원자재 등 1차상품)의 교역조건 개선
부정적 측면	· 중국상품의 급속한 시장침투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	· 주력 섬유수출시장(미국·유럽) 상실 · 미국 및 EU의 대아프리카 무역특혜 효과 반감

자료: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

- 실제로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협력 강화는 소수의 1차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모노컬처형(mono-cultural) 아프리카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아프리카의 주력 수출상품인 원유, 광물, 원자재 등 1차상품의 가격상승으로 교역조건(Terms of Trade)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.
-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자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.
-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수단과 짐바브웨 등 인권 탄압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으로부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서방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막후에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부정부패와 독재정권으로 악명 높은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“해가 지는 서쪽(서방국가 지칭)보다는 해가 뜨는 동쪽(중국 지칭)을 바라볼 것(Look East)” 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.
- 중국은 2004년 미국과 EU의 짐바브웨에 대한 무기금수(arms embargo)조치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와 군용트럭을 판매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음.

나. 부정적 효과: 섬유산업 붕괴론 대두

- 중국의 급부상으로 아프리카 자원수출국은 교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,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들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.
-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천연자원 집약적(natural resource intensive) 산업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제3의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쟁 정도는 약함.
- 그러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중국산 상품의 급속한 시장침투로 산업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.
- 특히 남아공의 경우에는 중국산 의류수입이 범람(남아공 의류수입시장의 86% 점유)하면서 섬유산업 종사자 수가 10년 전의 12만 명에서 지금은 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섬유산업의 붕괴론이 대두되고 있음.

- 더욱이 2005년 1월 다자간섬유협정(MFA) 폐지 이후 미국과 유럽 섬유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특혜 효과도 반감되고 있음.
- 그 결과 2005년 1/4분기 동안에만 남아공의 대미 의류수출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이나 감소했으며, 레소토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산 의류제품의 수입범람으로 10개 이상의 의류공장이 폐쇄되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침투에 따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음.

4.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에 대한 서방의 반응

- 중국의 급속한 아프리카 접근은 서방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-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속도는 식민통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유럽과 아프리카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음.
- 서방언론들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“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”를 실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음.
-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중국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그 사례로 최근 잠비아 대선에의 개입 사실을 들고 있는데, 잠비아 주재 중국 대사가 만일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,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임.
- 특히 자원공략에 대한 서방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음.
- 많은 서방언론은 중국이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중국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음.
- 심지어는 불법목재를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.

- 중국의 가봉 목재 수입 가운데 70%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적도기니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90%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미국언론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획득과정에서 인종 학살과 폭력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수단, 짐바브웨 등과 같은 '불량국가(rogue states)' 에까지도 군사무기를 공급하며 무차별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.
- 더욱이 부패정권과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 원조공세는 원조공여를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, 선정(good governance)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서방국가들의 의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, 뇌물공여 등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인프라 건설공사 수주를 독차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- 미국이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, 9.11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변화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이 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석유공급기지로 다루어오고 있기 때문임.
- 중국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30%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고, 앞으로 그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.
- 미국은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도입비중(물량기준)을 현재의 15%에서 2015년경에는 25%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.

5. 결론 및 시사점

가.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에 주목

-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경제교류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임.
- 중국, 일본, 인도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음.
- 이에 반해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그동안 사실상 불모지로 방치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력대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음.

-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(ODA) 비중은 7~8%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, 양국 간 교역액은 90억 달러로 중국의 1/4 정도에 불과함.
- 아프리카 원유도입비중도 한국은 4~5%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그 비중이 30%를 상회하고 있음.
- 아프리카는 더 이상 '암흑의 대륙' 이 아닌 21세기의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함.
- 아프리카가 이미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과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함.
-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'암흑의 대륙' 정도로만 인식하여 이 지역의 변화의 시그널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에 있어 그만큼 경쟁국들에 뒤질 수밖에 없음.
-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지니는 1차적인 의의는 역시 자원 확보임.
-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음.
-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.
- 특히 나이지리아, 앙골라, 적도기니 등의 신흥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아프리카 기네아만의 경우에는 심해유전개발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2008년경에는 1일 생산량이 700만~8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놓고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.
-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는 4%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 중동지역 대체도 가능함.
- 아프리카 대륙은 에너지자원 이외에도 각종 광물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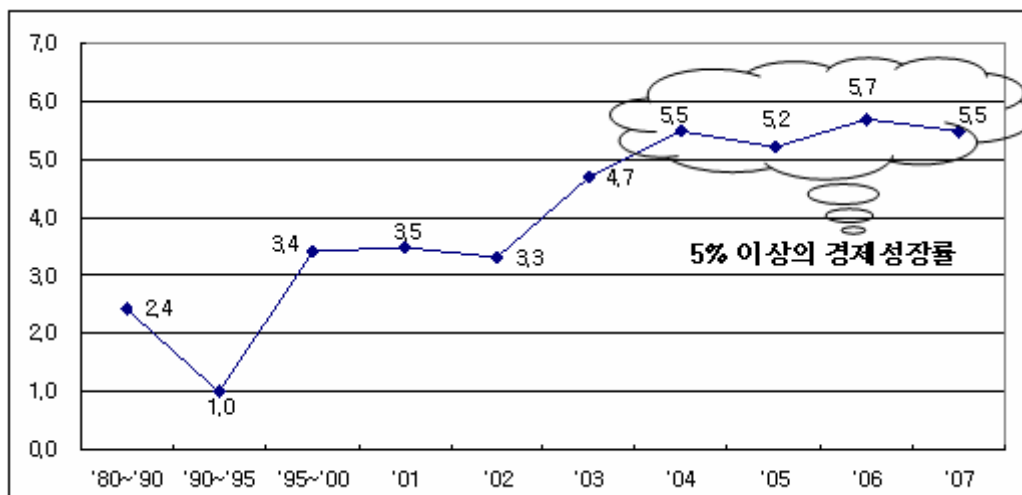
-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, 우리도 아프리카를 전략적 자원다변화 지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을 가동할 때임.

■ 해외건설 및 상품수출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- 아프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당하다시피 해왔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.

그림 3.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추이

(단위: %)



주: 2006년과 2007년은 IMF 전망치임.

자료: UNCTAD, Development of Africa Section(1980~2000); Global Insight, Country Report(2001~2003);

IMF, World Economic Outlook, 2006.9(2004~2007).

-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,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미개척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음.
-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경우, 아프리카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.
- 아프리카 인구 8억 5천만 명 가운데 휴대폰 사용인구가 이미 1억 3천만 명을 돌파했고, 오는 2010년경에는 그 수가 1억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지 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임.
- 특히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1/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.

나.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 로드맵

- 아프리카는 미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
-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를 염두해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임.
-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면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임.
-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
- 기본적으로는 대아프리카 협력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」의 실천이 중요함.
- 이 이니셔티브는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천명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10대 협력방안임.
- 이는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를 여하히 잘 실천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.
- 지난 11월 8일 개최된 「제1차 한·아프리카 포럼」도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국가프로젝트로 관리·운영되어야 할 것임.

표 3.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」 주요 내용

항 목	주요 내용
개발원조 규모 확대	2008년까지 대아프리카 ODA를 3배로 확대
개발경험의 공유	향후 3년내 1천 명의 아프리카인 초청연수
의료보건 지원	의료단 파견 확대·보건소 건립·의료장비 및 백신 개발 지원 등 보건인프라 지원
인적자원개발 지원	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관련 분야 교사초청연수
농림수산업 지원	농업기술 전수·농촌인프라 구축 지원·어업 및 수산양식분야 기술 지원
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	IT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확대·IT 훈련원 건립 및 전자정부 사업 지원
협력포럼 구성	민·관·학 협의체로 「한·아프리카 포럼」 구성
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 지원	세계식량계획(WFP)·UN공업개발기구(UNIDO)·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
무역역량 지원 및 통상 확대	최빈국에 대한 무관세·무쿼터 수입품목 확대
주인의식 제고방향으로 협력사업 추진	아프리카개발신평트너십(NEPAD)의 사회·경제개발 노력 지원

자료: 외교통상부

■ 개발경험의 공유 및 전수 등 소프트웨어 방식의 협력모델 개발

-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‘소프트 파워’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, 아프리카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임.
- 경제개발 경험 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음.
-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음.
- 다만 개발경험의 전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프리카 53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화 전략이 요구됨.